

안전에 대한 한미 대학생 소비자의 태도-행동모형 개발*

-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유현정**

식품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동시에 소비자들도 식품안전제도를 잘 이해하고 스스로 안전한 식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점차 글로벌화 되고 있는 시장환경을 고려할 때 식량자급률이 낮아 수입식품에 많은 의존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나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이해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소비자를 대상으로 각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식품안전태도 및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실제 식품안전인식, 태도, 행동을 측정된 뒤 이를 구조화하여 구조방정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식품안전을 위해 실천해야 하는 행동 측면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의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식품안전인식과 태도에 비해 행동점수가 높아 스스로 식품안전을 위해 실천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한국의 소비자들은 위해물질에 대한 우려보다는 위해식품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표시에 대한 신뢰도도 낮았던 반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식품의 생산과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식품에 대한 불안보다는 식중독균, 발암물질 등과 같은 위해물질들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표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전반적으로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신뢰가 한국보다 미국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소비자의 식품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모형화 했을 때, 식품안전인식은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는 다시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인식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식품안전, 식품안전태도, 식품안전행동, 식품위해, 구조방정식

1. 서론

최근 과학기술과 경제수준의 발전으로 인해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더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0).

**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 주저자

위험의 제거에 가까워지는 한편, 과거에는 없었던, 혹은 몰랐던 새로운 위험들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 “안전”이란 갈수록 확보되기 어려운 개념처럼 보이기도 한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벤조피렌이 함유된 우동 및 라면제품의 경우에도 그 유해성이 객관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소비자와 해당기업, 정부기관인 식약청 간에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품의 제조, 설계, 표시상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가 그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제조물책임법, §3조).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에서도 결함제품을 제조할 당시의 과학적 기술로는 그 결함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신기술 개발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새로운 위해요소들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제간 교역이 활발해지고 글로벌시장에서 국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오늘날 시장환경을 고려할 때 수입품의 잠재된 위험과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은 국내 제조물에 비해 더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수입품의 안전성 문제는 국가간 교역의 마찰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여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실례로, 중국산 기생충알 김치 사건은 휴대폰과 전자제품 수출관련 외교에서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광우병사태는 국내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가져다 주었을뿐만 아니라 한미FTA 체결 자체를 곤궁에 빠트리기도 하였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에 관한 일련의 사건들은 소비자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로인해 관여도를 높여줌으로써 차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효과를 가져다 준다. 일반적으로 안전이란 “위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위험의 제거 정도는 곧 안전성의 정도로 간주되곤 한다. 그러나 위험의 완전한 제거, 즉 100% 안전한 상태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유현정, 최은실, 김성숙, 이재은, 2010)하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에 따라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 및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이 차이가 생기게 된다. 즉, 좀 더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높은 안전기준을 요구하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에 더 주력할 수밖에 없는 국가사회체제에서는 안전의 문제들이 경제적 이익의 가치에 밀려 과소평가되기 쉽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글로벌시장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객관적 위해 수준이 어떠한지와는 별개로, 서로 다른 안전에의 인식 및 태도의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행동모형을 개발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유현정·이재은, 2010)에 따르면, 한국의 소비자들은 안전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고양되어 있는 반면 구체적인 안전지식이나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국 소비자의 경우에는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은 한국소비자에 비해 높지 않은 반면, 안전추구행동을 더 많이 실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들이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행동의 형성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위해들은 아무

리 제도적으로 차단하려 해도 소비자 자신의 관심과 노력이 없다면 해결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소비자 안전관리정책은 하드웨어적 측면의 제도 마련에만 치우치지 말고, 효과적인 소비자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과 지속적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소비를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 형성과정을 비교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안전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의 태도-행동 모형을 구축해 보고자 한다. 대학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오랜 생활 삶의 경험을 통해 국가적, 문화적 차이들이 더욱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20대에 속하는 대학생 소비자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기에 비교분석에 보다 용이한 대상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생 소비자들은 앞으로 미래 소비의 주역이 될 중요한 세대일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공히 가장 지성있는 세대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행동은 안전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준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인 미국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안전에 대한 태도와 안전추구행동 등을 분석, 우리나라와 비교해 봄으로써 자유무역시대에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현대사회와 위험의 개념

현대의 소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원화된 자급자족 시장체제에서 벗어나 타인에 의해 생산·가공된 재화를 소비하는 이원화된 시장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급자족 사회에서는 생산·가공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나 산업화된 재화의 공정과정은 소비자로 하여금 재화의 공정과정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송유진·유현정, 2008).

소비자 안전은 통념상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인지되어 왔다. 그러나 위험요소를 100% 제거한 상태는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불가능하며 비효율적이다. 또한 위험이 있는 곳에 더 큰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무조건적인 위험의 제거는 매우 비생산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성숙·이기춘, 1999: 96). 이러한 소비자 안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해(hazard) 혹은 위험(risk)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재정경제부·한국개발연구원, 2004). 위해란 소비자들의 신체, 재산이나 환경 등에 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위험을 위해와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위해는 상품 및 서비스로 인해 직접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사고, 즉 실제적 위험을 의미하고, 위험은 위해에 이르지 않았으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서 신체적 상해나 사고 등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김석철·박성용·황정선, 1989). 따라서 안전은 위험 혹은 위해와 대립

되는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흔히 안전성은 위험하지만 그 위험이 무시될 수 있거나 또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준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가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구성원이 안전성을 얼마나 중시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안전성이 결정될 것이다(양덕순·이기춘, 2002).

이와 같이 위험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과거에는 위험 논의를 객관성이나 불확실성과 관련된 확률의 문제로 다루었으나 최근에 위험 개념이 지니는 주관적이고 가치 평가적인 속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다(Slovic, 2000). 과거 위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위험의 원인을 과학적 지식의 부족으로 설명하였으나(강홍렬, 장종인 외, 2006), 최근에는 위험이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속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이나 문화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특징으로 인해 위험의 개념을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되, 가치판단적인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존재성이 아닌 인식(perception)의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조성경·오세기, 2002).

안전과 위험의 개념은 주관성과 상대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는 수준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생활영역과 인간 욕구의 한계가 시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가변성을 갖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위험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그 위험을 주관적으로 지각할 때 소비자는 그 위험을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송유진·유현정, 2008).

2. 위험에 대한 인지와 태도

1) 위험에 대한 인지와 수용성

최근 안전성의 개념을 ‘위험하지만 그 위험이 무시될 수 있거나 또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에 따라 위험에 대한 수용기준에는 차이가 발생한다(유현정, 2008).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기준’은 안전사회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안전 지향적 태도, 즉 안전에 어떠한 가치를 두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바람직한 가치(the desirable)’와 ‘바라는 가치(the desired)’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슈워츠는 ‘바람직한 가치’를 통해 문화의 차이를 측정한 반면 홉스테드(Hofstede, 2001)는 ‘바라는 가치’를 측정하였다. 슈워츠(Schwartz)는 ‘바람직한 가치’에서 가치를 사람들의 생활지침으로 작용하는 중요도에서 달라질 수 있는 바람직하며 상황을 초월하는 목표로 정의하였으며, 홉스테드는 ‘바라는 가치’에서 가치를 선호 또는 실제의 존재 상태인 행동적 선호라고 정의하였다(Marieke de Mooij, 2004 재인용). 위험에 대한 수용기준은 안전사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는 도달해야 한다는 이상적으로 바라는 기준점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규범기대 또는 바람직한 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유현정, 2008).

또한 위험에 대한 태도는 개인마다 위험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험인지란

위험지각의 바탕에 깔린 인지 과정으로, 위험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주관적인 측면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위험인지는 심리측정적인 방법에 의해 주로 측정되어져 왔다. 위험에 대한 관념은 항상 인지적이고 규범적인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무엇이 위험으로 간주되느냐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무엇이 위험인가에 관해서는 과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신념과 가치에 의해 평가되기도 한다.

식품안전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 분석한 유현정과 주소현(2012)에 따르면,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개인의 응답은 다분히 주관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결국 식품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고 평가하는 체감수준이라고 하였다. 과학적 불확실성(scientific uncertainty)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위험 수준에 대한 판단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정책 집행에서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 집단들의 위험인식은 객관적인 반면 일반인들의 위험인식은 주관적인 것으로 보고된다(차용진, 2006). 전문가 집단은 비교적 체계적인 기술적 측정(technical estimate)을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반인들은 위험의 특성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의 수용가능성(acceptability)을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하는 경향(Mumpower, 1994)이 있기 때문이다.

2) 위험인지의 유형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한 제품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 위험을 인지한다. 소비자가 인지하는 위험은 객관적 위험과 구별하여 주관적 위험으로 개념화하며 일반적으로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으로 설명된다. Bauer(1960)는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을 객관적 위험과 구별되는 주관적 위험으로서 불확실성과 불리한 결과(이득 또는 손실)라는 두 요소의 함수로 정의된 개념으로 보았다. 이러한 사실은 Shimp and Bearden(1982)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한편, Cox(1967)는 Bauer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주관적 위험을 불확실성과 손실이라는 두 요소의 함수로 보았고, Jacoby와 Kaplan(1972)은 주관적 위험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인식하였다(Song, *et. al.*, 2010).

그 이후 주관적 위험을 기대손실로 정의하고 조작하는 경향이 Peter and Tarpey(1975), Stone and Winter(1987)에 의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Peter and Tarpey(1975)는 선택의 최종단계인 제품선택 단계에서의 주관적 위험이란 선택이나 구매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기대손실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으며, Stone and Winter(1987) 역시 주관적 위험은 위험 그 자체가 기대손실이라는 독자적인 구성개념으로 개발되고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송유진·유현정, 2008 재인용).

따라서 주관적 위험에 대한 학자간의 정의에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위험과 구별하여 '구매행동의 결과에 대한 소비자가 주관적 불확실성과 구매 후 결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에 대하여 갖는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다(송유진·유현정, 2008: 218), 여기서의 위험은 손실

의 개념을 동반하며, 따라서 소비자의 주관적 위험이 높을수록 소비자도 하여금 정보탐색 및 위험처리행동을 유발시키며, 소비자의 제품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3.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

소비자는 위험을 인지함으로써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를 안전추구행동이라 하는데, 식품구매시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을 조사한 연구(송유진·유현정, 2008)에 따르면, 안전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식품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식품안전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위험의 지각은 제품의 평가와 선택 그리고 소비자 행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위험 지각은 다양한 소비자 행동 예를 들어 구전효과나 신제품의 수용, 브랜드 충성도 등에 영향을 준다. Loureiro, *et al.*(2002)의 연구에 의하면, 환경 친화적이라고 표시된 사과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의사를 연구한 결과, 미국 소비자들은 추가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자녀를 가진 가계, 환경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은 소비자, 식품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들이 환경 친화적 사과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제품에 대한 구매 경험, 사용경험 그리고 정보에의 노출에 따른 지각활동에 의해 수용가격을 갖게 된다(Hyun, 1993).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및 태도-행동 측정을 위한 척도를 개발한다.

[연구문제 2] 한·미 대학생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태도, 행동의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연구문제 3]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행동의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축한다.

2. 조사방법

본 연구는 한, 미 양국의 대학생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및 태도-행동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한 후 영문으로 번역을 거쳐 2명의 원어민 교수에게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2011년 12월 미국 베일러대학교와 사우스다코다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한국에서는 2012년 6월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정이 필요한 문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최종 완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2년

9월 한달동안 미국 사우스다코다 대학과 한국의 충북대학교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과 미국 각 112부씩 총 224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은 SPSS 19.0과 AMOS 19.0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탐색적요인분석, 확인적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활용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척도는 크게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태도, 행동의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은 위해물질우려도 12문항, 위해식품불안도 8문항, 표시신뢰도 8문항의 세가지 영역으로 세분되며, 식품안전태도는 5문항의 단일영역으로 측정된다. 식품안전행동은 식품상태확인행동 6문항, 식품위생행동 5문항, 식재료구입행동 2문항, 식품표시확인행동 4문항의 네가지 영역으로 세분된다. 척도는 유현정, 주수현(2012)이 활용했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선행연구들을 참고, 최종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표 1> 측정도구

기호	변수	기호	변수	기호	변수
위해물질우려도		위해식품불안도		표시신뢰도	
a1	짚은 식품위해 발생	b1	수입식품	c1	유통기한 표시
a2	식품첨가물 포함	b2	패스트푸드	c2	제조일자 표시
a3	식중독균 포함	b3	식육가공품	c3	국내산 표시
a4	중금속 포함	b4	냉동식품	c4	영양표시
a5	항생제 포함	b5	인스턴트	c5	원산지 표시
a6	환경호르몬 포함	b6	가공식품	c6	첨가물 표시
a7	유전자변형식품 포함	b7	외식음식	c7	유전자재조합 식품표시
a8	방사선조사식품 포함	b8	농약재배 식품	c8	식품광고 표시
a9	발암물질 포함	8문항		8문항	
a10	잔류농약 포함	식품상태확인행동		식품위생행동	
a11	이물질 포함	f1_1	조리시 유통기한 확인	f3_1	식힌 후, 냉장보관
a12	식품 위생	f1_2	구매시 유통기한 확인	f3_2	1회분씩 밀봉 냉동
12문항		f1_3	조리시 재료신선도 파악	f3_3	냉장고안 70%이하
식품안전태도		f1_4	구매시 포장상태 확인	f3_4	잡화구매후 식품구매
e1	교육 필요성	f1_5	주방기기 위생 확인	f3_5	저위해식품 구매
e2	위해요소회피	f1_6	조리방법 확인	5문항	
e3	위생안전사건관심	6문항		식품표시확인행동	
e4	안전정보 관심	식재료구입행동		f2_1	식품첨가물 확인
e5	위해식품 관심	f4_1	직접재배	f2_2	영양성분 확인
총 5문항		f4_2	농민 직거래	f2_3	유기농 확인
		2문항		f2_4	원산지표시 확인
				4문항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에서 최종 분석에 활용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한국	미국
성별	남성	57(24.5)	25(30.5)
	여성	54(48.6)	57(50.9)
학년	1학년	27(24.5)	0(0.0)
	2학년	16(14.5)	21(25.9)
	3학년	37(33.6)	36(44.4)
	4학년	30(27.3)	24(29.6)

IV. 연구결과

1. 안전에 대한 인식 및 태도-행동 척도의 개발

한미 대학생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행동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표 1>과 같이 초기 척도를 구성하였다.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행동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척도의 신뢰도를 검토하고,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항들을 삭제함으로써 척도의 정교화를 시도하였다. 척도의 정교화과정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2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각각의 단계별 척도의 정교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탐색적 요인분석(EFA)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각 주요변수 간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태도, 행동의 세 영역으로 구분된 이론변수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일 영역으로 구성된 태도를 제외한 인식척도와 행동척도에 대해 2회에 걸쳐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아이겐 값이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도록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Method)을 실시하고, 직교회전(Varimax)방식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유목화된 척도에 대하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먼저, 식품안전인식은 ‘위해물질우려도’, ‘위해식품불안도’, ‘표시신뢰도’의 총 3개의 요인으로 유목화되었으며, 위해물질우려도에서는 잦은 식품위해발생(a1)문항이 제거시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

라 나타나 삭제하였고, 위해식품불안도에서는 농약재배식품(b8)이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문항으로 나타나 삭제하였다. 표시신뢰도에서는 삭제를 요하는 문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잦은 식품위해발생(a1)과 농약재배식품(b8)을 삭제 한 뒤 각 요인들의 신뢰도는 .913, .860, .861로써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안전태도는 요인분석결과 단일요인으로 확인이 되었고, 식품안전교육에의 필요성(e1) 문항을 제거할 때 신뢰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나 삭제처리하였다. 이로써 식품안전태도 척도는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계수는 .801로 나타나 신뢰할만 하였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행동은 ‘식품상태확인행동’, ‘식품위생행동’, ‘식재료구입행동’, ‘식품표시확인행동’의 네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나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식재료구입행동과 식품표시확인행동의 일부 문항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재조정되었다(<표 4> 참조). 또한 식품표시확인행동으로 분류되었던 원산지표시(f2_4)문항이 식품상태확인행동요인으로 분류되는 등 약간의 척도 수정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재분류된 요인들 및 각 요인에 로딩된 문항들을 검토한 뒤 새롭게 안전행동의 영역을 구성하였다. 이로써 식품안전행동은 식품상태확인행동 6문항, 식품표시확인행동 5문항, 식품처리행동 4문항으로 재조정되었다. 또한 조리시 신선도과파(f1_1)문항이 제거시 신뢰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삭제 조치하였다. 최종 식품안전행동의 세가지 요인들의 신뢰도계수는 .796, .855, .765로 대체로 신뢰도 수준이 만족할 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식품안전인식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변수	위해물질 우려도	위해식품 불안도	표시 신뢰도	공통성	Cronbach's α
a9	.791	.188	-.011	.490	0.913
a6	.785	.229	.024	.538	
a8	.776	.157	.000	.681	
a5	.767	.219	-.081	.576	
a4	.764	.174	-.080	.645	
a7	.739	.225	-.004	.588	
a3	.712	.186	-.069	.638	
a2	.679	.213	-.067	.570	
a10	.671	.256	-.015	.443	
a12	.660	.233	-.022	.511	
a11	.658	.196	-.031	.486	
b5	.175	.810	-.037	.406	
b6	.266	.777	-.075	.609	
b3	.325	.757	-.032	.553	
b4	.196	.757	-.045	.593	
b2	.222	.756	-.049	.644	
b7	.247	.694	-.078	.717	
b1	.284	.580	-.052	.343	0.860
c5	-.040	-.052	.823	.379	
c6	-.106	-.046	.816	.502	
c4	-.007	-.026	.788	.593	

c7	-.069	-.063	.767	.668	
c3	.000	-.048	.750	.565	
c2	-.014	-.056	.733	.687	
c8	-.053	-.073	.727	.557	
c1	.007	-.059	.680	.363	
고유값	7.707	3.928	2.710	고유값 계	14.345
%분산	29.643	15.108	10.424	%분산계	55.174
%누적	29.643	44.751	55.174	-	-

<표 4> 식품안전행동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변수	식품상대 확인행동	식품표시 확인행동	식품위생 처리행동	공통성	신뢰도
f1_2	.839	.071	.190	.236	0.835
f1_4	.814	.043	.123	.543	
f1_6	.785	-.105	-.173	.548	
f1_5	.700	-.060	-.173	.679	
f2_4	.687	.157	.349	.418	
f1_3	.666	.238	.289	.583	
f4_1	.018	.821	.074	.680	0.766
f4_2	.079	.736	.011	.618	
f2_3	-.002	.660	.327	.745	
f2_2	.265	.567	.160	.658	
f2_1	-.095	.576	.030	.523	
f3_2	.340	.366	.767	.327	0.707
f3_1	-.090	.167	.705	.507	
f3_3	.052	.087	.635	.625	
f3_5	.299	.114	.477	.506	
고유값	4.379	2.541	1.274	고유값 계	8.194
%분산	29.191	16.940	8.495	%분산계	54.625
%누적	29.191	46.131	54.625	-	-

2) 확인적 요인분석(EFA) 및 신뢰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유목화된 요인들 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이하 CFA)을 실시하였다. CFA는 개별잠재요인 CFA를 실시한 후 전체잠재요인 CFA를 실시하여 척도정리과정을 정교화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CFA분석을 통해 적합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을 M.I.를 참고하여 제거하고자 하였다. 제거를 요하는 변수는, 첫째 식품안전인식척도 중에서 ‘식품위해 우려도’의 방사선조사식품 포함(a8), 식품위생(a12), ‘식품표시신뢰도’에서 제조일자표시(c2), 유전자재조합 식품표시(c7), 마지막으로 식품안전행동 척도 중에서 ‘위생처리행동’의 생활잡화구입후 식품구매(f3_4)가 제거가 필요한 문항들로 파악되었다. 이에 CFA 결과 추가적으로 a8, a12, c2, c7, f3_4의 다섯 개 변수를 추가로 삭제하였다.

최종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태도-행동 측정을 위한 모든 척도들을 투입하여 CFA

를 실시한 결과, GFI, AGFI, CFI 등이 대체로 0.8이상이며 RMR 또한 0.045로 0.05 미만으로 나타나 척도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되었다.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및 제거변수

잠재요인		χ	RMR	GFI	AGFI	CFI	제거 변수
식품 안전 인식	위해물질 우려도	373.701***	0.045	0.887	0.848	0.905	a8, a12
	위해식품 불안도	123.275***	0.036	0.902	0.883	0.941	
	표시 신뢰도	200.807***	0.035	0.945	0.901	0.932	c2, c7
	안전인식전체	1523.900***	0.041	0.862	0.862	0.911	
식품안전태도		19.029***	0.015	0.976	0.912	0.902	
식품 안전 행동	식품상태 확인행동	155.814***	0.031	0.928	0.875	0.928	
	식품표시 확인행동	29.828***	0.035	0.956	0.903	0.974	
	식품위생 처리행동	30.460***	0.032	0.849	0.932	0.952	f3_4
	안전행동전체	653.370***	0.043	0.901	0.899	0.921	
전체		3192.725***	0.045	0.882	0.832	0.901	

* p <.05, ** p<.01, *** p<.001

2. 한미 대학생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태도, 행동의 차이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태도,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1)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

한, 미 양국의 대학생소비자들이 자국의 식품안전수준에 대한 인식은 다음의 <표 6>, <표 7>, <표 8>과 같이 조사되었다. 양국의 대학생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나 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표시신뢰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먼저 위해물질우려도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의 평균이 3.37과 3.53으로 중간을 조금 넘는 정도로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위해물질무려도의 세부문항들을 보면, 식중독균 우려와 발암물질 우려의 두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두 항목 모두에서 미국의 평균이 높아 미국의 대학생 소비자들이 식중독균이나 발암물질 등 위해물질에 대한 우려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은 평균(m=3.67)을 보인 반면, 미국에서는 발암물질(m=3.93), 잔류농약(m=3.79), 식품첨가물(m=3.77)의 순으로 우려가 높았다.

<표 6> 한, 미 대학생 소비자의 위해물질우려도 차이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위해물질우려도(전체)	한국	111	3.37	.737	1.58
	미국	79	3.53	.801	
식품첨가물 우려	한국	112	3.67	.990	-700
	미국	83	3.77	1.016	
식중독균 우려	한국	112	3.13	.931	-3.050**
	미국	83	3.57	1.084	
중금속 우려	한국	112	3.13	1.015	-207
	미국	83	3.16	1.110	
항생제 우려	한국	112	3.32	1.050	-133
	미국	82	3.34	1.009	
환경호르몬 우려	한국	112	3.56	.928	1.164
	미국	82	3.39	1.130	
유전자변형식품 우려	한국	111	3.21	1.088	-1.337
	미국	83	3.42	1.127	
방사선조사식품 우려	한국	112	3.10	1.107	-1.868
	미국	83	3.39	.998	
발암물질 우려	한국	112	3.54	.994	-2.634**
	미국	82	3.93	1.003	
잔류농약 우려	한국	112	3.58	.974	-1.436
	미국	82	3.79	1.074	
이물질 혼입 우려	한국	112	3.46	.986	-1.076
	미국	82	3.62	1.038	

* p<.05, ** p<.01, *** p<.001

<표 7> 한, 미 대학생 소비자의 위해식품불안도 차이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위해식품불안도(전체)	한국	112	3.40	.684	-1.36
	미국	82	3.27	.669	
수입식품 불안	한국	112	3.48	.930	2.432*
	미국	82	3.16	.895	
패스트푸드 불안	한국	112	3.44	.994	-.891
	미국	83	3.57	1.002	
식육가공품 불안	한국	112	3.38	.840	1.162
	미국	83	3.22	1.060	
냉동식품 불안	한국	112	3.28	.942	3.630***

	미국	83	2.80	.880	
인스턴트식품 불안	한국	112	3.64	.889	2.130*
	미국	83	3.35	1.029	
가공식품 불안	한국	112	3.46	.890	-.750
	미국	83	3.57	1.002	
외식음식 불안	한국	112	3.14	1.012	-.674
	미국	83	3.24	.995	

마지막으로 표시신뢰도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가장 높은 인식을 보인 영역으로서 한국의 평균이 3.96, 미국의 평균이 4.30으로 미국의 소비자들이 한국의 소비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표시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시신뢰도를 구성하는 세부 문항들을 보면, 모든 문항들에 있어 한국과 미국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또한 모든 문항에 있어 한국보다 미국의 평균이 높아 한국의 대학생 소비자들이 식품의 표시에 대해 미국의 소비자보다 신뢰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한국의 대학생들이 식품안전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각종 표시제도에 대하여 불신의 정도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한, 미 대학생 소비자의 표시신뢰도 차이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표시신뢰도(전체)	한국	112	3.96	.962	4.77***
	미국	83	4.30	.711	
유통기한 표시 신뢰	한국	112	3.88	.966	-2.76**
	미국	83	4.10	.835	
국내산 표시 신뢰	한국	112	3.24	1.050	-4.01***
	미국	83	3.81	.862	
영양표시 신뢰	한국	112	3.31	1.031	-6.26***
	미국	83	4.14	.735	
생산지 및 원산지 표시 신뢰	한국	112	3.24	.961	-5.11***
	미국	82	3.89	.737	
식품첨가물 표시 신뢰	한국	112	3.05	.948	-4.02***
	미국	82	3.62	1.002	
식품광고 표시 신뢰	한국	112	3.01	.915	2.18*
	미국	82	3.32	1.099	

2)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의 차이

한, 미 양국의 대학생소비자들의 식품안전태도는 다음의 <표 9>와 같이 조사되었다. 한국의 대학생

들은 모든 태도 항목에서 3점 이상의 높은 평균을 보인 반면 미국 대학생들은 모두 3점 미만의 평균을 보여 태도의 전체평균점수를 비롯, 4개의 개별 항목들에서 모두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한국의 대학생들은 식품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보를 탐색하려는 태도에 있어 평균 3.78의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식품위해요소를 회피하기 위해 방법을 찾거나($m=3.46$), 식품위해요소($m=3.41$) 및 위생안전사건($m=3.26$)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대학생들도 식품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보탐색하려는 태도에서 평균 2.77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나, 그 정도는 한국의 대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미국의 대학생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다음으로 식품위해요소에 관심을 갖고 항상 확인한다는 응답이 많았다($m=2.58$). 다음으로는 위생안전사건에 대한 관심($m=2.33$), 식품위해요소 회피($m=2.30$)의 순으로 나타나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가 한국의 대학생들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표 9> 한, 미 대학생 소비자의 식품안전태도 차이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식품안전태도(전체)	한국	112	3.47	.720	8.39***
	미국	81	2.49	.902	
식품위해요소 회피	한국	112	3.46	.858	9.00***
	미국	83	2.30	.920	
위생안전사건에 대한 관심	한국	112	3.26	.878	7.08***
	미국	83	2.33	.951	
식품안전에 대한 지속적 관여	한국	112	3.78	.856	7.18***
	미국	83	2.77	1.09	
식품위해요소에 대한 관심	한국	112	3.41	1.03	5.18***
	미국	83	2.58	1.20	

* $p < .05$, ** $p < .01$, *** $p < .001$

3) 식품안전에 대한 행동의 차이

한, 미 양국의 대학생소비자들의 식품안전행동에 대한 차이는 <표 10>, <표 11>, <표 12>와 같다. 식품안전행동의 세가지 영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식품상태확인행동과 표시확인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위생처리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천하고 있는 식품안전 행동은 식품상태확인행동($m=4.10$)이었으며, 가장 실천률이 떨어지는 행동은 표시확인행동($m=2.5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상태확인행동은 유통기한을 확인하거나 조리 전 상한 재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가장 1차적

인 식품의 안전상태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는 행동으로,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가장 쉽고 흔히 교육이 되고 있는 내용이며, 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실천행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부 문항별 한, 미 대학생 소비자들의 차이를 보면, 조리 전 상한재료를 확인과 조리전 조리방법 확인의 두 문항에서 양국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두 문항 모두 미국의 대학생들에게서 한국의 대학생들보다 높은 평균이 나옴에 따라 미국의 대학생들이 식품 조리 전 위생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좀 더 습관화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국의 대학생 모두 조리전 상한 재료의 확인에서 평균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유통기한 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의 소비자들이 한국의 소비자보다 식품상태확인을 더 잘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0> 한, 미 대학생 소비자의 식품상태확인행동 차이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식품상태확인행동(전체)	한국	111	4.01	.686	2.26*
	미국	85	4.19	.612	
조리전 상한 재료 확인	한국	112	4.34	1.151	-1.65*
	미국	86	4.57	.660	
조리전 조리방법 확인	한국	112	3.69	1.014	-2.91**
	미국	86	4.07	.764	
조리기구 위생상태 확인	한국	112	3.84	.926	-1.33
	미국	85	4.02	1.000	
유통기한 확인	한국	112	4.32	.922	.737
	미국	86	4.22	.987	
포장상태 확인	한국	111	3.89	.957	-1.54
	미국	86	4.10	.958	

* p<.05, ** p<.01, *** p<.001

표시확인행동은 한국과 미국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으로서 특히 한국의 대학생들은 평균 2.27의 낮은 응답을 보였다. 표시확인행동은 식품첨가물이나 영양성분, 유기농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식품상태를 확인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은 관여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2차적 행동이어서 식품상태확인행동보다 낮은 평균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의 소비자가 평균 2.80을 보인데 비해 한국의 소비자가 2.27로 p<.001수준에서 유의할 정도로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표시확인을 강조하는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세부 문항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유기농 확인 및 직접 재배의 두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문

항들에서 양국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영양성분의 확인을 제일 많이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유기농 확인이 뒤를 이었다. 미국의 대학생들도 영양성분 확인을 제일 높게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다음으로는 식품첨가물 확인이 유기농 확인보다 높은 평균을 보여 한국의 경우와 차이가 있었다. 양국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세가지 문항 모두 한국보다 미국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 식품표시 확인행동을 미국의 대학생 소비자들이 한국의 대학생 소비자들보다 더 많이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1> 한, 미 대학생 소비자의 표시확인행동 차이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표시확인행동(전체)	한국	111	2.27	.766	4.67***
	미국	84	2.80	.779	
유기농 확인	한국	111	2.59	.909	-1.18
	미국	86	2.76	1.105	
영양성분 확인	한국	111	2.66	1.004	-6.99***
	미국	86	3.70	1.075	
식품첨가물 확인	한국	111	2.47	.998	-3.44***
	미국	85	2.99	1.107	
농민과 직거래	한국	111	1.92	.955	-4.45***
	미국	86	2.57	1.091	
직접 재배	한국	111	1.74	1.051	-1.75
	미국	85	2.02	1.215	

마지막으로 위생처리행동은 냉장고 사용시 70% 이하로 식품을 채운다던가, 식품위해가 적은 식품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등 평상시 생활속 습관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TV나 신문, 잡지 등에서도 쉽게 다루어지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식생활의 주된 책임이나 역할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위생처리행동을 전체로 보았을 때는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 모두 비슷한 수준의 응답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부 문항별로 살펴보면, 위해가 적은 식품을 먹으려 노력한다, 냉장고에 70% 이하로 식품을 보관하려고 노력한다는 두 문항에서 양국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위해가 적은 식품을 먹으려고 노력한다는 문항에서는 한국보다 미국의 평균이 높았으나, 냉장고에 70%이하로 식품을 보관하려 노력한다는 문항은 한국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한국에서의 식품안전교육 중 냉장고 관리의 내용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

왔기 때문에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식품안전행동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대학생들이 좀 더 많은 실천을 행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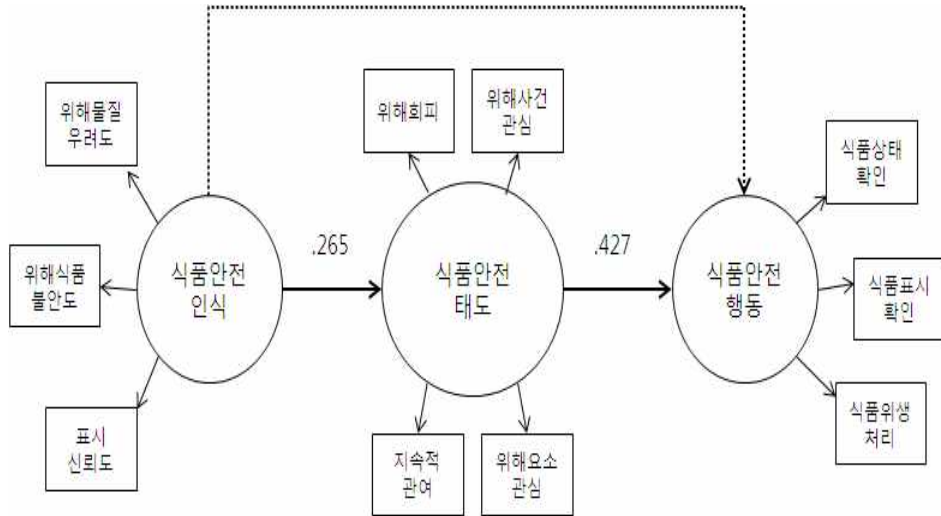
<표 12> 한, 미 대학생 소비자의 표시확인행동 차이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위생처리행동(전체)	한국	111	3.23	.758	0.20
	미국	84	3.25	.732	
위해 적은 식품 먹으려 노력	한국	111	3.01	1.022	-4.01***
	미국	86	3.59	.999	
냉장고 관리	한국	111	3.15	1.020	2.309*
	미국	84	2.77	1.274	
뜨거운 음식 식혀보관	한국	111	3.63	1.198	1.59
	미국	86	3.36	1.147	
생선, 고기 나누어 밀봉	한국	111	3.15	1.230	-.743
	미국	86	3.28	1.113	

3.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행동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행동의 형성과정을 알아보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그림 1>참조).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행동은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식품안전인식이 가장 선행변수로 위치하게 되며, 인식에 따른 태도와 행동의 인과관계가 <그림 1>과 같이 그려질 수 있다.

식품안전인식은 위해물질우려도와 위해식품불안도, 표시신뢰도의 3가지 잠재변수로 구성되며, 식품안전태도는 단일 잠재변수로, 식품위해요소회피, 위생안전사건에 대한 관심, 식품안전에 대한 지속적 관여, 식품위해요소에 대한 관심의 4가지 측정변수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행동은 식품상태 확인행동, 표시확인행동, 위생처리행동의 세가지 잠재변수로 구성된다. AMOS 18.0을 통해 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RMR(.045), GFI(.901), AGFI(.868), CFI(.918) 등 주요 지표들이 모두 수용가능한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구조모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1>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행동모형

식품안전에 대한 한미 대학생소비자의 태도-행동모형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식품안전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식품안전태도는 식품안전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식품안전인식이 식품안전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형성된 태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식품안전행동이 유발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식품안전인식이 식품안전태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식품안전태도가 식품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 보다 안전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을 스스로 지키려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을 살펴보고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행동모형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식품안전인식을 살펴보면, 위해물질에 대한 우려는 미국이 높고, 위해식품에 대한 불안은 한국이 높았다. 또한 표시에 대한 신뢰는 미국이 높아 한국과 미국사회가 갖고 있는 식품안전의 실태와 문제점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미국의 대학생소비자들은 식중독균이나 발암물질과 같이 현재의 과학기술로서 완벽하게 밝혀내기 어려운 위해물질 혹은 요소로 인해 식품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반면, 각 식품별 위해에 대해서는 불안감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표시에 대한 신뢰도도 한국보다 유의하게 높아 식품을 생산, 제조, 가공, 유통하는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위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걱정을 덜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는 식탁까지 제공되는 먹거리에 대해 적어도 의도적, 혹은 실수로 인해 위해를 야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뢰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의 소비자들은 새롭게 제기되는 위해물질들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반면, 위해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표시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 아직 한국의 식품시장 및 식품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을 안심시켜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식품안전태도를 보면, 모든 문항들에서 한국의 소비자들이 미국의 소비자에 비해 높은 평균을 보인다. 식품위해요소를 회피하려 하고, 위생안전사건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식품위해요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는 최근 한국에서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이 미국보다 식량자립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수입식품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식품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상세한 정보들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식품안전태도를 취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와는 달리 식품안전행동에 있어서는 한국의 소비자보다 미국의 소비자들 좀 더 실천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식품안전행동의 세가지 세부 영역에서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한국의 대학생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에 대해 갖고 있는 모순된 행동경향으로서 앞으로 많은 홍보 및 교육이 요구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관련 사례들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위해사건을 보도 중심으로 전달만 하고, 그 과정에 대한 상세한 추적보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데에는 소홀했기 때문에 위해에 대한 부정적 기억만이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에 남아 있고, 이를 피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교육적 효과를 제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도를 위한 보도에 끝날 것이 아니라 위해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체제를 정비하는 것과 함께 소비자 스스로도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를 알려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행동모형을 분석해 본 결과, 식품안전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식품안전태도는 식품안전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식품안전인식이 식품안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안전 혹은 위해를 인지하더라도 이것이 안전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내면화를 거쳐 태도로 형성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제도적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소비자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소비자역할에 대한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지나치게 높은 인식 및 태도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행동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반복적으로 초래되고 실제 소비자안전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명목뿐인 식품안전행정과 교육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 강홍렬 외. 2006. 일상의 안전을 위한 미래의 사회시스템: 지식정보사회의 위험관리.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석철·박성용·황정선. 1989. 소비자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 김성숙·이기춘. 1999. 생활안전에 대한 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22: 95-113.
- 송유진·유현정. 2008. 식품구매시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이 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구조모형분석: 서울과 상해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9(3): 215-242.
- 양덕순·이기춘. 2002. 소비자의 안전의식을 고려한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재검토. 소비자학 연구. 13(1): 1-24.
- 유현정. 2008. 국민 안전권 확보를 위한 고찰: 취약계층을 위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4(2): 17-31.
- 유현정·이재은. 2010. 한.중.미.일 4개국 소비자의 안전의식과 안전관리서비스에 대한 평가. 국가위기 관리학회보. 2(2): 33-51.
- 유현정·주소현. 2012. 소비자의 식품안전지향행동의 구조모형 분석. 2012년 한국소비자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유현정·최은실·김성숙·이재은. 2011. 위험사회를 사는 소비자와 생활안전. 서울: 대영문화사.
- 이재은·유현정. 2007. 국가위기관리의 새로운 영역 설정과 추진 전략: 국민생활안전 위기 영역의 분류와 운영 방안 모색. 한국위기관리논집. 3(2): 1-17.
- 재정경제부·한국개발연구원. 2004. 중장기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연구. 서울: 재정경제부·한국개발연구원.
- 조성경·오세기. 2002. 원자력시설 및 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인자 도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에너지공학. 11(4): 332-341.
- 차용진. 2006. 위험 수용성 및 정책적 함의: 심리측정패러다임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18.
- Bauer, Raymond. A. 1960. *Consumer Behavior as Risk Taking, Dynamic Marketing for a Changing World*. Robert S. Hancock, ed. Chicago: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 Cox, Donald. F. 1967. *Risk Taking and Information Handling in Consumer Behavior*. Harvard University, Boston.
- Hofstede, G.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2nd. ed. Sage Publication.
- Jacoby, J. and L. Kaplan. 1972. The Components of Perceived Risk. M. Venkatesan, ed. *Proceedings of the 3rd Annual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Chicago, IL., 382-393.

- Marieke de Mooij. 2004. *Consumer Behavior and Culture*. Sage Publications, Inc.
- Mumpower, J. L. 1994. *LLRW Disposal Facility Siting: Success and Failures in Six Countries*. Dordrecht, Th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Peter, J. P., L. X. Tarpey. 1975. Comparative Analysis of Three Consumer Decision Strategi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 29-37.
- Slovic, Paul. 2000. Trust, Emotion, Sex, Politics and Science: Surveying the Risk-assessment Battlefield. In Paul Slovic. *The Perception of Risk*. London: Earthscan Publication Ltd.
- Shimp, T. A. & W. O. Bearden. 1982. Warranty and Other Extrinsic Cue Effects on Consumers' Risk Perception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 38-46.
- Song, E., Hyun Jung Yoo, Jae Eun Lee, Hee Cheon Choi, Ju Ho Lee. 2010, Inter-Country Comparison on Model of Consumers' Safety Pursuit Behavior.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Crisis's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Stone, Robert N. and Frederick W. Winter. 1987. Risk: Is It Still Uncertainty Times Consequences?, in Russel W. Belk, et al. eds. *Proceedings of the Winter Educators' Conference*.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Chicago, IL 261-265.

俞炫汀: 성균관대학교에서 가정학 박사(소비자학 전공)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인터넷 쇼핑에 대한 소비자만족모델: 20, 3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2001), 현재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세부 전공분야는 소비자행동, 소비자교육 및 정책 등이며, 소비자와 생활안전(공저, 2011), 재난을 바라보는 다섯가지 시선(공저, 2009) 등의 저서와 “식품구매시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이 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구조모형분석-서울과 상해소비자를 중심으로”(2008),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한 재난관리서비스의 개선 방안”(2008)등의 연구논문이 있다(yoohj@chungbuk.ac.kr)

투 고 일: 2012년 10월 06일
수 정 일: 2012년 11월 13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09일